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22(금) ~ 2024.11.28(목)

제공일시 2024 12 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22(금) ~ 2024.11.28(목)

제공일시 2024 12 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캘리포니아주지사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 州 지원… 테슬라 제외” vs 머스크 “미쳤다”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주는 계속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다만, 테슬라 전기차는 캘리포니아주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임
-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같은 계획에 즉각 반발하고 나섬
- 블룸버그통신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제안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인 뉴섬 주지사와 공화당의 강자 머스크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평함

[\(해럴드경제 2024.11.26\)](#)

2. 호주, 핵심광물 세금 인센티브 추진

- 호주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관련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수소와 핵심광물 생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법안 도입을 추진함
- 새 법안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전기차,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 호주 정부는 오는 2028년 6월로 끝나는 회계연도부터 2039/40 회계연도까지, 31개 핵심광물 가공·정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더구루 2024.11.26\)](#)

3. EU, ESG 규제 간소화 추진… 경쟁력 논란 속 규제 완화 검토

- 유럽연합(EU)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ESG 관련 규제를 간소화할 계획임. 차기 집행위원회는 ESG 규제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논의를 진행 중임
-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간소화가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핵심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같은 ESG 규제 간소화는 마리오 درا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경고 이후 나온 조치임. 차기 집행위원회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4.11.26\)](#)

국내 정책

1. 정부, K-반도체 위기 탈출 돕는다... 용인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지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음. 27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함
- 1조8000억원 규모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정부가 상당부분 지원하기로 함
- 아울러,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부 지원한도 상향을 추진할 방침임
-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반도체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줄 예정임. 반도체 주요 원재료는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함

[\(테크M 2024.11.27\)](#)

2. 환경부,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 진출

- 정부가 국내 기업의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함
-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힘
-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베트남 건설부와 27일 하노이 인근의 빈푹성에서 한-베트남 상하수도 협력 및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을 주제로 하는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 아울러, 환경부는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에서 관계자를 만나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 설립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투데이에너지 2024.11.26\)](#)

3. 韓·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말레이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양 정상은 또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음
-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

[\(세계일보 2024.11.25\)](#)

글로벌 기업

1. 글로벌 톱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 녹색철강 투자 계획 연기

- 세계 2위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이 EU의 규제 지침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녹색 투자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힘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회사는 17억유로(약 2조원) 규모의 탄소 저감 투자 프로그램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8억5000만유로(약 1조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최종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음
- 독일의 철강기업 티센크루프도 지난 10월 녹색철강의 생산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30억유로(약 4조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임팩트온 2024.11.26\)](#)

2. 미쓰비시·미쓰이,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 확장... 에너지 안보 강화 나서

- 일본 종합상사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물산이 인도네시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인 탕구 LNG 프로젝트 확장에 나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23일(현지시간) 닷케이가 보도함
- 이번 프로젝트 확장은 BP, 일본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등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총 70억달러(약 9조7706억원)가 투입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11.24\)](#)

3. 中 BYD, 내년 주행거리 늘린 차세대 LFP 배터리 출시

-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강자 중국 비야디(BYD)가 내년 차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임
- 25일(현지시간) CNEV포스트 등에 따르면, 카오 슈양 BYD 중앙아시아·유럽 자동차 판매 담당 임원은 중국 CGTN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차세대 블레이드형 배터리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힘

[\(지디넷코리아 2024.11.26\)](#)

4. 폭스콘, 인도 타밀나두주에 BESS 공장 건설

- 애플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의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이 인도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27일(현지시간) 더이코노믹타임즈(E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州) 정부가 폭스콘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공장 건립을 위해 첸나이에서 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km) 떨어진 티루발루르 지역의 부지 200에이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타밀나두주 정부는 또한 폭스콘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폭스콘과 주 정부 간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함

[\(뉴스핌 2024.11.27\)](#)

국내 기업

1. LG전자, 멕시코 거점서 '도요타-혼다' 전기차 부품 만든다

- LG전자가 일본 완성차업체 도요타와 혼다를 전장 사업부문 주요 고객사로 확보함. 최근 북미 지역 핵심 생산기지인 멕시코 공장에서 일본 자동차 기업에 들어갈 전장 부품 생산을 대거 확대한 것으로 확인됨
- 현대차, GM에 이어 전장 부문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임. 오는 2030년 전장 부문 매출 20조원이란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됨
- LG전자 멕시코 라모스 아리즈페 공장 가동계획에 따르면, 회사는 일본 도요타와 혼다를 전장 부문 신규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아시아투데이 2024.11.25\)](#)

2. 삼성물산 상사부문, LS일렉트릭과 신재생 사업 맞손

-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LS일렉트릭과 25일 글로벌 신사업 개발 공동 추진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힘
- 양사는 합작사를 설립하고 첫 협업 대상으로 현재 삼성물산이 미국에서 개발 중인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젝트를 선정함
- 삼성물산은 각종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개발 분야를, LS일렉트릭은 전력 솔루션 제공 등 기술 분야를 담당함

[\(뉴스핌 2024.11.25\)](#)

3. 고려아연, 한화와 호주 배터리 에너지저장사업 협력 강화

- 고려아연이 호주 최대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에서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함
-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는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 진행 중인 리치몬드밸리 에너지저장장치(Richmond Valley ESS) 프로젝트에 사용할 배터리와 시스템 통합 패키지 공급업체로 한화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힘
- 양사는 호주 정부 주도로 급성장 중인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 시장을 함께 공략할 계획임

[\(아주경제 2024.11.26\)](#)

4. DL, 캐나다 비료 공장 프로젝트 참여... '북미 블루 암모니아 시장' 진출

- DL그룹의 지주사 DL이 캐나다 비료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북미 블루 암모니아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힘. DL은 지난 20일 캐나다의 비료 업체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와 비료 공장 프로젝트 설계와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함
- 이는 캐나다 중남부 서스캐처원주 벨 플레인 지역에 하루 1500톤의 블루 암모니아를 처리해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임. 총 계약 금액은 3500만달러(약 486억원)이며, 2026년까지 종료할 계획임

[\(블로터 2024.11.24\)](#)

일본 정부 400여 개 자국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 의무화

- 일본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자국 내 400여 개 대기업이 해당 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음

-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주요 언론은 21일(현지시각) 일제히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2026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연간 1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임 현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약 300~400개로,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일본 정부는 GX(녹색 전환) 추진법 개정을 목표로 2025년 국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법적 틀을 마련할 예정임. 대상 기업은 주로 전력, 철강, 화학 산업을 비롯해 자동차, 운수, 항공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이 제도는 유럽연합(EU)이나 한국의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시될 전망임

-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업마다 정부가 배출량 한도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대상 기업은 자사의 배출량을 줄여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른 기업에 매각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만약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초과 배출을 지속하면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됨

- 교도통신은 이번 제도의 주요 대상 기업으로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철, 미쓰비시케미칼그룹, 일본제철, JR동일본, ANA홀딩스 등을 지목했음. 대상 기업은 일본 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대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제도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화하겠다는 '탄소 중립' 목표를 내걸고 있음.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 외에도 2033년부터 발전사업자에 유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

- 일본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을 1년 여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전력, 철강, 화학, 자동차, 운수, 항공 분야 기업은 비상이 걸린 상태임

- 이번 정책은 일본이 국제적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에게는 배출량 감축과 추가 비용 부담이라는 도전 과제를 안기게 될 전망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일본 경제와 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임팩트온 2024.11.25\)](#)